

## 한의대 교과목으로서 의료윤리에 관한 고찰

이정원<sup>1)</sup> · 이해웅<sup>2)\*</sup>

<sup>1)</sup> 동의대학교 의료보건생활대학 의료경영학과, <sup>2)</sup>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의학교육실

### A Study on the Medical Ethics Education at Colleges of Korean Medicine

Jeong-Won Lee<sup>1)</sup> & Hai-Woong Lee<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s and Human Ecology

<sup>2)</sup>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the Offic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2016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0 out of 12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are offering medical ethics. Medical ethics has become essential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but there has been no agreement on the content of education yet, so initial discussions ar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Methods :** In this study, basic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papers, reports, books, and media articles on medical ethics related to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by studying the website of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nationwid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status of medical ethics lectures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ethics lectures by western medical schools. The contents suitable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were discussed.

**Results :** The topics of the medical ethics include: the basic concepts of medical ethics, the ethics of birth, the ethics associated with genetics, the ethics associated with death, and the ethics regarding doctor-patient interaction, the ethics of medical research, medical rationing ethics, ethics between medical staffs, medical law and ethics, philosophical base of medical ethics, ethics of doctor as professional, and moral personality formation of doctor. The contents of medical ethic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flected views on the human body and life based on 『Huangdi's Internal Classic』 and medical ethics from the viewpoints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Conclusions :**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are medical training institution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is essential to become a Korean medicine doctor as professional worker, medical practitioner, and biomedical researcher.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basic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n both western and Korean medicine,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contents depending on the clinical practice. The contents of medical ethics on clinical practice should be modified for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thics would be set up upon that.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medical ethics needs to be added as one part so that all the ethical problems related to the clinical situation can be solved.

---

**Key words :** medical ethics, medical law, Korean medicine, education, medical school

---

• 접수 : 2018년 6월 1일 • 수정접수 : 2018년 6월 5일 • 채택 : 2018년 6월 9일

\*교신저자 : Hai-Woong Lee, 47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52-57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51-850-7438, 팩스 : 051-850-7435, 전자우편 : jameslee@deu.ac.kr

## I. 서론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는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권위자로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에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다.<sup>1)</sup> 특히 整體觀, 天人相應 등 전인적인 생명관을 바탕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우주로서 한 개체를 조화롭게 되돌려 주기 위한 다각적 진단 및 치료를 추구한다.<sup>2)</sup> 의사는 환자의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 부조화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바꾸기 위한 치료를 수행하기에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나 ‘비밀 준수’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전통 동아시아 의료현실에서 이러한 의료윤리관이 나타나 있다.<sup>3)</sup> 『醫宗損益』에 보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마음을 삼기에, 醫가 곧 仁術이다”<sup>4)</sup>라고 하여 醫術을 곧 仁術로 파악했던 관점을 보여준다. 계속하여 “어떤 의사들은 환자의 급박함을 이용하여 재화를 속여 취하기도 한다. 이는 쉬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盜跖과도 같은 무리이다. 어떻게 인술이 그러한가!”<sup>5)</sup>라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는 환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의사를 믿고 전적으로 치료를 맡기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성의껏 진료에 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물론 현대 의료환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다.<sup>6)</sup>

전통적인 한의학 교육은 동양의 중심사상이었던 유

교의 윤리의식이 바탕이 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료윤리 교재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의서에는 위에서 언급된 當代 의학의 의료윤리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잇는 현대 한의학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개론, 경전강독, 동양철학, 의학사, 한의학원전 등의 기초학 교육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료윤리관이 어느 정도 소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임상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위의 과목들에 대한 학습 동기 부여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며<sup>7)</sup>, 이와는 별도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같이 의료윤리 과목이 별도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sup>8)9)10)</sup> 2006년 11개 한의과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의료윤리 과목이 개설된 것과 비교하여<sup>11)</sup>, 2018년에는 12개 한의학교육기관 중 10개 기관에 의료윤리 과목이 개설되어<sup>12)</sup> 개설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Table 1).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는, 2005년에 전체 41개 의과대학 중 40개 대학에서<sup>13)</sup>, 2016년에 모든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실시되어<sup>14)</sup> 필수과목이 되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은 거의 필수가 되었지만 아직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으며, 강의 교수의 모임도 없기에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다. 일찍이 1994년에 김용진이 박사학위논문인 ‘의학윤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서 이 주제를 다룬 바 있다.<sup>15)</sup> 그는 『周易』,

Table 1. Medical Ethics Lectures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2018  
(Homepages of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학점	시간	학년	학기
가천대학교	의료윤리학	1	2	예2	1
경희대학교	의학윤리	1	2	본2	1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2	1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2	2
동의대학교	의학윤리	2	2	예1	2
상지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1	1
세명대학교	한방의료윤리	2	2	예2	1
우석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1	1
원광대학교	의학윤리	1	2	예2	2
부산대학교	생명과의료의 윤리	3	3	1	2

『書經』, 『黃帝內經·素問』, 『黃帝內經·靈樞』를 비롯하여 『史記』, 『傷寒論』, 『淮南子』, 『本草衍義』, 『備急千金要方』, 『景岳全書』, 『醫學入門』,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 중국과 한국의 방대한 고전을 시대 순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의학윤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사의 윤리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관계 및 윤리내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신동원의 ‘한국 전통의학의 의학윤리와 생명윤리’(2004)는 조선시대에 널리 읽혔던 醫書인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醫學入門』, 『萬病回春』, 『景岳全書』, 『醫宗損益』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학윤리 뿐 아니라 생명관을 토대로 한 윤리사상을 살펴보고, 조선 중기 이후 仁術 윤리가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sup>16)</sup> 다음으로 김대환 등의 ‘한 의과 대학 직업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의료인 윤리교육 방법론 연구’(2011)에서는 의료윤리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한의과대학 윤리교육 현황 및 복합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sup>17)</sup> 권지혜 등의 ‘전국 한의과 대학의 의료윤리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2012)은 한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 현황을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sup>18)</sup> 유지은 등의 ‘한의학 분야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인식’(2015)에서는 연구윤리 분야에 집중하여 교수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연구윤리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9)</sup>

본 논문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교과목의 필요성과 도입현황, 의과대학 의료윤리 교과목 내용,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에 관해 살펴보고 앞으로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과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술하려고 한다.

## II. 본 론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과 연관된 의료윤리를 주제로 논문, 보고서, 단행본, 미디어 기사를 검색하고, 전국 한의학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기관에서 의료윤리 도입 과정 및 강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양의학교육기관의 의료윤리 강의현황과 비교해보았

다. 한의학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윤리의 분야에 대해 찾아보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 또한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의료윤리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 의학과 관련된 윤리 관련 논문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그 수가 부족하였으며 본 연구는 한의대에서 의료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지향하여 앞으로 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의료윤리 교과목의 필요성 및 강의 현황

현대 교육 환경에서 한의과대학은 바람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원하는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최근 들어 주요한 주제이다. 의료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종종 미디어에 보도되곤 한다. 병원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교수의 폭행<sup>20)</sup>, 환자 성추행<sup>21)</sup>, 병원내 직원 탈의실 몰키<sup>22)</sup> 등 양방은 물론 한의학 임상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윤리의 필요성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연관된 부분, 의생명과학 연구수행과 연관된 부분, 의료제도와 관련된 부분, 의료윤리의 철학적 영역 등에도 적용된다. 금세기 들어 사회가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사회학 기반의 성찰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관점이 이미 200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한의학 분야 학부과정 평가에 드러난다. 평가기준을 보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권장 표준 교과목 중 하나로 인문사회 의학 관련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하며, 예시로 의료윤리학, 인간관계론, 의학과 사회, 의사학, 동양철학, 예방의학, 보건법규를 들고 있다.<sup>24)</sup> 처음으로 평가 기준을 통해 한의학 교육에서도 의료윤리 과목이 필요함을 권장하였다.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3집(2005-2006년도)에 5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던 의료윤리 과목이 제4집(2007~2008년도)을 보면 8개 대학으로 늘어나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3).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설립 후 1주기 평가인중<sup>25)</sup>에서는 기초와 임상교육 내실화를 기하면서 의료윤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교수총원과 관련하여 인문사회분야를 언급하였다.

Table 2. Medical Ethics Lectures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2005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3집 2005-2006년도, 전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학점	시간	학년	학기
가천(경원)대학교	의료윤리학	1	2	예과	1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의료윤리	2	2	예1	1
동의대학교					
상지대학교	의료윤리학1, 2	1	2	예	1, 2
세명대학교	의료윤리	2	2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의학윤리	1	1	예	

Table 3. Medical Ethics Lectures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2007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4집 2007-2008년도, 전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학점	시간	학년	학기
가천(경원)대학교	의료윤리학	1	2	예과	
경희대학교	의학윤리	1	2	본과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	
동의대학교	의학윤리	2	2	예1	
상지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	
원광대학교	의학윤리	p		예2	

최근 출판된 2016 한의학연감(2018) 자료를 보면 12개 한의학교육기관 중 10개 교육기관에서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하였다(Table 4). 홈페이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교는 학석사통합과정에 ‘생명과 의료의 윤리’가 신설되었고, 대전대학교의 경우 기존의 ‘한의윤리학’이 사라져 연감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윤리교육은 이제 교육과정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직업전문화 과정을 겪어 온 한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교육의 양적인 성취는 이루어졌으며 이제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sup>26)</sup>

특히 올해 들어 대한한 의사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 준비 논의는 한의과대학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관해 충분

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책무를 던져주고 있다. 작년에 발간된 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편람을 보면 “한의과대학(원)은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와 수준을 명시한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sup>27)</sup>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에서 예로 든 한의사 역량모델을 보면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 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 의료경영 및 관리’까지 총 5개의 역량군을 정하였고 각 역량군마다 3개의 역량을 할당하고 있다.<sup>28)</sup> 이 중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 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부분이 인문사회의학, 특히 윤리의식과 관련이 깊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한의사의 역량의 첫 번째는 진료능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료윤리 관련 역량도 광범위하게 필요

Table 4. Medical Ethics Lectures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2016  
(2016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대학교	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가천대학교	의료윤리학	1	2	예2	1
경희대학교	의학윤리	1	2	본2	1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2	1
대전대학교	한의윤리학	1	2	예1	2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2	2
동의대학교	의학윤리	2	2	예1	2
상지대학교	의료윤리학	2	2	예1	1
세명대학교*	한방의료윤리	2	4	예2	1
우석대학교	의료윤리	1	2	예1	1
원광대학교	의학윤리	p	2	예2	2
부산대학교					

\* 세명대학교는 2학점 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부 내역에는 2학점 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시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다고 한평원은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고르게 교육할 것인지는 당분간 각 대학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3. 의료윤리 교과목의 내용

한의학대학 의료윤리 교육의 확대 과정을 보면, 한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이 양적으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앞으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직 각 대학의 의료윤리 담당교수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교과과정 토의 회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각 강의교수의 역량에 따라 내용, 범위, 수준 등이 정해지고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이미 국시에 반영되어 2013년부터 매년 윤리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며<sup>29)</sup>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라고 비판 받은 바 있다.<sup>30)</sup> 세계적인 추세가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발 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출제범위에 따라 일부 임상과목에서 윤리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나, 별도로 의료윤리 항목의 시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의료윤리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진 '원리주의'(principlism)는 비참(Beauchamp)과 칠드리스(Childress)의 네 가지 원칙을 말하며,<sup>31)</sup>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이다. 그중 가장 먼저 나

오는 자율성 존중 원칙은 다음과 같다.

"Autonomy is one principle in medical ethics usually being in the first place among the principles. When it comes to patients' right their autonomous action as well as their attitude over clinical situations sh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which means 'respect for autonomy'."<sup>32)</sup>

19세기 말 세균의 발견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세계전쟁을 두 번 거치면서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생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통제되지 않은 인체대상 실험의 비윤리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범재판을 통해 비인도적인 인체실험을 금지하는 '뉴른베르크 강령'은 이후 세계의사회의 1964년 '헬싱키선언'으로 이어지며 인체대상 의학연구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강조하게 된다.<sup>33)</sup> 그 외, 장기이식, 뇌사, 대리모, 줄기세포 치료, 안락사, 시험관아기, 복제동물 등 과학기술 발전이 의료윤리의 발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임상과 연구가 혼합된 다양한 상황을 서양의학계는 경험해왔다. 따라서 서양의 의료윤리는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법과 결합되어 연구·발전되었고 그 내용은 대개 윤리이론, 의료분배, 환자 의사관계, 비밀준수, 정신보건, 환자의 동의, 의료과오, 유전정보, 임상연구, 장기

이식, 낙태, 인공수정, 대리모, 안락사 등 주로 현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4)</sup>

의과대학에서 개설된 의료윤리 강의의 주제로는 의료윤리 주 기본 개념, 출생에 관련된 윤리, 첨단 의학과 관련된 윤리, 죽음과 관련된 윤리, 의사-환자 관계와 관련된 윤리, 의학연구에 관련된 윤리, 의료분배에 관련된 윤리, 동료 의료인 및 직원과의 관계와 관련된 윤리, 특수 환자와 관련된 윤리, 의료와 법, 의료윤리의 철학적 기반,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윤리, 의사의 인격적 기반확립을 들 수 있다.<sup>35)</sup> 또한 교재로는 2/3 이상의 대학에서 『의료윤리학』(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 계축문화사)과 『임상윤리학』(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 출판부)을 사용하였다.<sup>36)</sup> 『의료윤리학』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고, 『임상윤리학』은 비교적 서술이 구체적이고 약간 분량이 많지만 두 책 다 사례를 첨부하고 있어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의사 역량모델에서 제시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 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도 의료윤리 교육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의사 관계는 물론, 의사와 의료인, 의사 집단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며, 특히 변화된 환자-의사 관계에서는 치료 결과 뿐 아니라 치료의 과정으로서 의사소통도 중요하다.<sup>37)</sup> 코커햄(2007)은 환자-의사 관계를 환자-의사 상호작용으로 표현하여 소통 행위의 측면을 표현하였다.<sup>38)</sup> ‘전문 직업성 함양’은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의사 집단으로 조직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포괄한다. 이에 는 자율성, 규범준수, 권위, 동일체감이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집단이 가지는 의권과 사회적 책임 또한 전문직업성에서 파생된다.<sup>39)</sup> ‘사회적 책무 수행’은 의사로서 가지는 사회적 책무와 의학교육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로 나눌 수 있으며, 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는 교육목표 설정에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 내용을 평가척도로 설정하고 있다.<sup>40)</sup>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의학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서는 보통 네 가지 가치를 언급하는데<sup>41)</sup> 이를 구체적으로 한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방침으로 설정한 대학이 있다.<sup>42)</sup>

#### 4.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

전통적인 한의학 교육의 기본 경전인 『黃帝內經』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天人相應, 精氣神血, 臟腑經絡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sup>43)</sup> 그리고 傷寒論 自序에서는 “...위로 君親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래로 貧賤한 자의 厄疾을 救療하고 가운데로 몸을 온전하게 養生하지 않고... 榮勢를 좇으며 권력자와 부자를 따라 名利에만 힘을 쓴다(怪當今居世之士, 曾不留神醫藥, 精究方術, 上以療君親之病, 下以救貧賤之厄, 中以保身長全, 以養其生. 但競逐榮勢, 企踵權豪, 孜孜汲汲, 惟名利是務)”<sup>44)</sup>고 하여 올바른 의사의 길을 지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의사의 마음가짐에 관하여 논한 것은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에서 서술한 <論大醫習業>과 <論大醫精誠>이 대표적이다.<sup>45)</sup> 신동원(2004)은 의방유취에서 論大醫精誠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학술연마, 임상의 마음가짐 등 여섯 항목으로 분석하여 의사의 윤리로서 설명하였다.<sup>46)</sup> 의과대학 교재인 의료윤리학에서도 사례의 하나로서 <論大醫精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병이 나서 고쳐 달라고 온 사람이 있으며 그 부귀와 빈천, 어른과 아이, 예쁜 사람과 못난 사람, 원수와 친한 사람, 한족과 오랑캐 여부를 묻지 말고 모두 친척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sup>47)</sup>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근우는 한의학 임상이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의서를 통해 연구하여 의학지식의 중요성, 국가 및 사회의 윤리 실천, 청렴성, 여성 환자에 대한 윤리, 비밀유지 등의 사항을 정리하였다.<sup>48)</sup>

19세기 말의 『醫宗損益』에서 黃度淵은 의사가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각 제목을 보면 ‘의술은 전하기 어렵다’(醫巧難傳), ‘의술은 곧 인술이다’(醫乃仁術), ‘의사들이 고치기 어려운 것’(醫人膏肓),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破壞病人心)이다.<sup>49)</sup>

“의사로서 주의할 점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농담을 적게 하며 허튼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의사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말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우연히 병을 한번 고쳤다 하여 머리를 쳐들고 아주 잘 난 듯이 천하에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의사들이 고치기 어려운 것)<sup>50)</sup>

그리고 환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扁鵲의 ‘六不治’와 더불어 ‘十失’과 ‘十要’, ‘의사를 청하는 것’(延醫)을 서술하였다.<sup>51)</sup>

“병의 경하고 중한 것을 막론하고 한두 첩으로 곧바로 효과를 보려던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의사를 청하는데 아침에는 진(秦)나라 의사, 저녁에는 초(楚)나라 의사를 청해 온다.”<sup>52)</sup>

전통 한의학 경전에 등장하는 윤리의 내용은 陰陽家, 五行家, 道家의 영향이 나타나는 『黃帝內經』의 生命觀과 養生思想을 비롯하여 儒家의 영향을 받은 ‘仁愛’의 사상, 佛敎의 영향이 나타나는 ‘大慈大悲’, ‘一切唯心造’의 사상<sup>53)</sup>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의료윤리의 항목으로 정리된 부분이 없을 뿐 많은 부분에서 현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며, 그 시대의 배경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현대 한의학 교육기관에서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현대 의료윤리 교육의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한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의료윤리의 보편성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윤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sup>54)</sup> 의학에서 윤리의 필요성은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가 된 윤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의료현실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행위나 사건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sup>55)</sup> 의료법적인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할 실익이 있지만<sup>56)</sup>, 의료윤리에서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sup>57)</sup> 이런 의미에서 의료윤리

는 실천윤리 또는 응용윤리라고 부른다.<sup>58)</sup>

의료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크게 임상윤리, 생명윤리, 직업윤리, 연구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서로 구분하기는 힘들다.<sup>59)(60)(61)</sup> 임상윤리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 의료인과 의료인,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문제,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 의료분배를 다루며, 생명윤리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입장에서 배아 및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장기이식, 안락사, 대리모 등의 문제를 다룬다.<sup>62)</sup>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전문직 한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분야이다.<sup>63)</sup>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항목에 규정된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윤리와 임상윤리를 포괄한 개념이 될 것이다. 연구윤리는 일반적인 연구자가 가져야 할 윤리에 더해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피험자와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사항을 다룬다.<sup>64)</sup>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 인간 존중의 사회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강의하다보면 동료교수나 수강생들로부터 의료윤리 과목에서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는 현대 의료윤리 교재의 내용이 서양의학 임상의 토대에서 만들어졌고 지난 세기부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의학, 윤리, 철학, 생명과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집적한 결과물이지만 아직 한의학계에서는 의료윤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65)(66)(67)</sup> 향후 한의사 또는 한의대생을 위한 의료윤리 교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의 부분을 제외하면 현대 의료윤리 교재의 내용이 한의학의 영역에서도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 임상윤리, 연구윤리와 직업윤리 모두 의사나 한의사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sup>68)(69)</sup> 다만 임상에서 서양의학과의 한의학의 임상영역이 다르기에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의료윤리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생명윤리의 분야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뇌사, 장기이식, 인공수정, 대리모, 유전자 복제, 인공지능, 사이보그 등<sup>70)</sup>에 관한 윤리적인 접근의 경우 그 성과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

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한의학의 의료윤리 내용은 현대 한의사의 의료 환경에 맞게 다시 논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의료윤리의 영역별로 나누어서 내용을 넣거나, 따로 전통윤리에 관한 章으로 교재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통 한의학의 의료윤리가 현대 한의학 및 현대 의학의 의료윤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 소개된 선행논문과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의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세포를 관찰할 수 없었을 때,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 죽음의 과정을 통제할 수 없었을 때, 유전자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바라본 생명관과 윤리관은 현대 의료현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통 한의학의 생명윤리 관점을 참조하되 역사의 흐름을 겪어 온 현 시대의 과학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료윤리의 교육이 가야 할 것이며 한의학의 현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71)</sup> 현대 의과학에 기반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윤리의 영역을 현재 한의사가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는 해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으로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변화될 의료의 모습 속에서<sup>72)</sup> 한의사의 임상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의학이 가지는 장점은 온전한 한 개체를 바라보는 전일적인 관점의 의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의학 교육에서 학습하는 과목에 담겨 있는 한의학적 생명관과 전통 의료윤리관의 연장선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우리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체계적인 의학교육에 힘쓴 의과대학에서도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더하여 인문사회의학이라는 기둥을 만들어 의사소통, 의사학, 의료윤리, 의철학, 국제의료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sup>73)</sup> 지금까지 해온 의학지식 및 임상술기 위주의 의학교육으로는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부족함을 느껴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sup>74)</sup> 전우택, 양은배(2003)는 바람직한 의사상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환자-의사 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며<sup>75)</sup> 이를 위해서 인문사회의학 교과목의 하나인 의료윤리의 구성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한의대 의료윤리 교과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

칙일 것이다.

“의사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고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sup>76)</sup>

### III. 결 론

이상 한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과목의 필요성과 강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윤리 교과목의 내용은 어떤 것을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의료윤리의 내용이 전통한의학의 의료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한의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였다.

한의과대학도 의료인 양성기관이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의과학자로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윤리의 기본 원리는 한양방 영역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각각 임상 의료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다. 현대 의료윤리의 내용을 한의사의 임상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 부분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이해하며 임상현실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 한의사로서 자질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한의학 의료윤리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지금처럼 일부 임상과목에서 의료윤리를 다루는 방식보다는 종합적인 임상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시험영역에 의료윤리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참고문헌

1.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제3판. 서울:정담미디어·(주)학지사. 2015:1-4, 69-75.
2. 전국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양생학. 제3판. 서울:계축문화사. 2012:3-7.
3.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제2판. 서울:

- 계축문화사. 2008:61-62.
4. “한의학교전DB”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mediclassics.kr/books/59/volume/1#content\\_151](https://mediclassics.kr/books/59/volume/1#content_151)> (accessed 2018.05.06)
  5. “한의학교전DB”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mediclassics.kr/books/59/volume/1#content\\_151](https://mediclassics.kr/books/59/volume/1#content_151)> (accessed 2018.05.06)
  6. Ban DJ. An Application of the Hippocratic Oath to Modern Medical Ethics. *Philosophy of Medicine*. 2012;14:93-114.
  7. (2018.05.03.) “한의대생들 임상에 필요한 교육만 받고 싶어요”.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61>) (accessed 2018.06.03.)
  8. 김대환, 김병수, 강정수. 한의과 대학 직업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의료인 윤리교육 방법론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 13-24.
  9. Kwon JH, Kim YY, Lee SW, Yoo JH. Study of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on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26(4): 572-576.
  10. Choi EK, Chang KH, Kim SY, Kwon I, Kim OJ.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eachers, materials, and methodologies. *Korean J Med Ethics Educ*. 2006;9(1):44-59.
  11. 전국한의학대학장협의회.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3집. 2005-2006년도. 2006.
  12. 각 대학 홈페이지 조사(accessed 2018.05.06.)  
 가천대학교 교과과정 (<http://www.gachon.ac.kr/major/koreanmedicine/01/curriculum.jsp>)  
 경희대학교 2018년 1학기 종합시간표. ([http://163.180.96.142/servlets/timetable?attribute=frame\\_kor](http://163.180.96.142/servlets/timetable?attribute=frame_kor))  
 대구한의대학교 교과과정. (<http://kmc.dhu.ac.kr>)  
 대전대학교 교과과정표. 예과. (<http://home.dju.ac.kr/medicine/html/sub.htm?pgc=120101>)  
 본과. (<http://home.dju.ac.kr/medicine/html/sub.htm?pgc=120102>)  
 동국대학교 2018 교육과정 ([https://web.dongguk.ac.kr/user/introduction\\_dgu/info/college/goals.jsp?deptCd=DK020901&id=kr\\_030109010200](https://web.dongguk.ac.kr/user/introduction_dgu/info/college/goals.jsp?deptCd=DK020901&id=kr_030109010200))  
 동신대학교 2018학년도 교과과정. 예과. (<http://dshani.dsu.ac.kr/dshani/index.php?pCode=course&mode=view&idx=709>)  
 본과. (<http://dshani.dsu.ac.kr/dshani/index.php?pCode=course&mode=view&idx=710>)  
 동의대학교 교과과정 (<http://omc.deu.ac.kr/curriculum1>)  
 상지대학교 교과과정표. (<https://www.sangji.ac.kr/medicine/index.action>)  
 세명대학교 2018학년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http://www.semyung.ac.kr/prog/curriculum/smhani/sub03\\_01/C31/view.do](http://www.semyung.ac.kr/prog/curriculum/smhani/sub03_01/C31/view.do))  
 우석대학교 교육과정. (<https://hani.woosuk.ac.kr/2015/inner.php?sMenu=A4000>)  
 원광대학교 2018년 교육과정. ([http://kmed.wku.ac.kr/?page\\_id=1920](http://kmed.wku.ac.kr/?page_id=1920))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교육과정(2016년도) (<https://kmed.pusan.ac.kr/kmed/13857/subview.do>)
  13. 『의과대학교육현황』 제13집 (2004-2005년). Choi EK, Chang KH, Kim SY, Kwon I, Kim OJ.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eachers, materials, and methodologies. (*Korean J Med Ethics Educ*. 2006;9(1):44.)에서 재인용
  14. Yoo SH, Joo YS, Lee SH. Graduate and postgraduate medical ethics education. *J Korean Med Assoc*. 2017;60(1):24-31.
  15. 김용진. 「의학윤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6. Shin DW. Bioethics and Medical Ethics in Korean Medical Tradition.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2004;5(0):65-90
  17. 김대환, 김병수, 강정수. 한의과 대학 직업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의료인 윤리교육 방법론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 13-24.
  18. Kwon JH, Kim YY, Lee SW, Yoo JH. Study

- of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on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26(4): 572-576.
19. Yu JE, Cheon ME, Lim BM, Kwon YK, Kim BJ. Awareness and attitudes of professors regarding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the colleges and the school of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2015;36(3):1-13.
  20. (2017.12.28) “전공의 폭행 근원적 원인, 왜곡된 도제식 수련시스템”.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5827&tthead=22r01>>) (accessed 2018.05.07.)
  21. (2017.05.29) “손 마사지 치료 빙자해 청소년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030300004.HTML?from=search>>) (accessed 2018.05.07.)
  22. (2018.03.27) “한의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해 여직원 훔쳐본 한의사 입건”.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327.99099011957#cb>>) (accessed 2018.05.07.)
  23. Lee HJ, Hong JW, Hong SP, Lim YK, Kim DK, Jung JG, Lee SY, Kwon YK. Attitudinal Study of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toward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Human Social Medical Study in the Curriculu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6):1134-1141.
  24. 『2008년도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한의학 분야 평가 편람 및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34-35.
  25. 『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대상기관용 편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2.
  26. Kwon JH, Kim YY, Lee SW, Yoo JH. Study of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on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26(4): 572-576.
  27.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편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7:87.
  28.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설명회(영남권) - 대학별 준비사항: 역량중심교육 준비. 교육목표설정 및 강의계획서 작성』. 2018.02.22.:24-28 slide.
  29. (2015.10.30) “이 문제 다 풀면 ‘뭘 좀 아는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com/news/1689437499>>) (accessed 2018.05.06)
  30. (2016.09.28.) “의사국시에 의료윤리문제 고작 1개,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8/2016092801988.html](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8/2016092801988.html)> (accessed 2018.05.06)
  31. Herring J. *Medical Law and Ethics*. 4th ed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12:24.
  32.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6th ed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9:99.
  33.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제2판. 서울:계축문화사. 2008:60-61.
  34. Schwartz L, Preece PE, Hendry RA. *Medical Ethics: A Case Based Approach*. Oxford: Elsevier. 2002(조비룡, 김대균, 박균열, 정규중 공역.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경기도:인간사랑. 2008) ; Jonathan Herring. 『*Medical Law and Ethic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5. Choi EK, Chang KH, Kim SY, Kwon I, Kim OJ.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eachers, materials, and methodologies. *Korean J Med Ethics Educ*. 2006;9(1):44-59.
  36. Choi EK, Chang KH, Kim SY, Kwon I, Kim OJ.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eachers, materials, and methodologies. *Korean J Med Ethics Educ*. 2006;9(1):44-59.
  37. Scambler G. *Sociology as Applied to Health and Medicine*. 7th edn. London:Palgrave. 2018:81-84.
  38. Cockerham WC. *Medical Sociology*. 10th edn.

-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7: 211-215.
39.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경기도: 집문당. 2006: 255-263.
  40. 『제2주기한의학교육평가인증편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7: 75.
  41. Boelen C, Heck JE. Defining and measu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WHO. 1995: 5-8.
  42.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 책무수행에 대한 한 의과대학의 방침. 세명대학교. ([http://www.semyung.ac.kr/cop/bbs/BBSMSTR\\_000000000271/selectBoardArticle.do?nttId=2569&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searchWrd=](http://www.semyung.ac.kr/cop/bbs/BBSMSTR_000000000271/selectBoardArticle.do?nttId=2569&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searchWrd=)) (accessed 2018.06.03.)
  43. 홍원식, 윤창렬. (증보)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96-108.
  44. 張仲景. 新編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3
  4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93623>) (accessed 2018.05.07)
  46. Shin DW. Bioethics and Medical Ethics in Korean Medical Tradition.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2004;5(0):65-90.
  47.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제3판. 서울: 정담미디어 · (주)학지사. 2015: 28.
  48. Kim GW. Medical Ethics based on Confucian Ideas in Eastern Medicine.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9;20(3):149-168.
  49. 黃度淵. 醫宗損益 上. 김동일, 노룡갑, 박위근 역. 서울: 여강출판사. 1993: 49-50.
  50. 黃度淵. 醫宗損益 上. 김동일, 노룡갑, 박위근 역. 서울: 여강출판사. 1993: 50.
  51. 黃度淵. 醫宗損益 上. 김동일, 노룡갑, 박위근 역. 서울: 여강출판사. 1993: 50-53.
  52. 黃度淵. 醫宗損益 上. 김동일, 노룡갑, 박위근 역. 서울: 여강출판사. 1993: 53.
  53. Kim GW, Park SY. Research for the Buddhist Thought of Ancient Medical Record -Focus on Medical Ethics and Psychotherapy-.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3;24(1):109-122.
  54.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제2판. 서울: 계축문화사. 2008: 16-19.
  55. Schwartz L, Preece PE, Hendry RA. Medical Ethics: A Case Based Approach. Oxford: Elsevier. 2002(조비룡, 김대균, 박균열, 정규중 공역.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경기도: 인간사랑. 2008): 15-23.
  56. Lee HW. The Legal Perspectives of the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7;21(2):45-53.
  57.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제3개정판. 경기도: 도서출판 동녘. 2013: 24.
  58.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제2판. 서울: 계축문화사. 2008: 20.
  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임상윤리학 제3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60.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제3판. 서울: 정담미디어 · (주)학지사. 2015.
  61. Schwartz L, Preece PE, Hendry RA. Medical Ethics: A Case Based Approach. Oxford: Elsevier. 2002(조비룡, 김대균, 박균열, 정규중 공역.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경기도: 인간사랑. 2008).
  62.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14-15.
  63.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제3판. 서울: 정담미디어 · (주)학지사. 2015: 69-81.
  64.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 제3판. 서울: 정담미디어 · (주)학지사. 2015: 307-351.
  65. Schwartz L, Preece PE, Hendry RA. Medical Ethics: A Case Based Approach. Oxford: Elsevier. 2002(조비룡, 김대균, 박균열, 정규중 공역.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경기도: 인간사랑. 2008): 285-315.
  66.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9-17.
  67. Chin KH.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bioethics in Korea. Bio, Ethics and Policy. 2017;1(1):3-29.
  68. Yu JE, Cheon ME, Lim BM, Kwon YK, Kim BJ. Awareness and attitudes of professors regarding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the colleges and the school of Korean Medicine.

- J Korean Med, 2015;36(3):1-13.
69. 김대환, 김병수, 강정수. 한의과 대학 직업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바라본 의료인 윤리교육 방법론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 13-24.
70. Herring J. Medical Law and Ethics. 4th ed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12:270-468.
71. Lee CY. Understanding Curren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Preliminary Study for Discussion on the Identity Issue of TKM.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5):758-769.
72. Chang S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anges in the future medical world. J Korean Med Assoc 2017;60(11):856-858.
73. Jeon WT, Kim AY.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Medical Education - The Role of Yonsei University's Medical Education. Yonsei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7;20(1):51-68.
74. Im JG. Vis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orean J Med Educ 2009; 21(2):95-96.
75. 전우택, 양은배.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77-82.
76. 전우택, 양은배.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182.